

노벨상 시상식 참관기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 한 인 규

수년전의 일이다. 필자는 스웨덴과학한림원장으로부터 그해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물론 부부가 동행할 것을 요청하는 정중한 초청이었다. 우리는 시상식 이틀 전에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 도착하여 먼저 행사장에 입고 들어갈 연미복을 대여하고 내 몸에 맞도록 손질하는 일을 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노벨상 시상식은 12월 10일경 오후 4시 30분에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거행된다. 이 무렵 북구의 낮 시간은 연중 가장 짧다. 아침 10시경에 해가 뜨고 오후 3시면 어두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후 4시경에 노벨상 시상식장에 참석자들이 도착했을 때는 벌써 캄캄한 초저녁이었다. 필자 내외는 4시 10분에 식당에 도착하였는데 이미 콘서트홀의 단상, 단하 및 발코니는 1,300여 명의 참가자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모두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였는데 현지에서 들은 얘기로는 시상식 참석이 확정된 다음에 만일 부인이 작고하게 되면 그 사람은 딸이라도 동반해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상에는 수상자, 심사위원, 행사진행요원 및 왕과 왕의 가족들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정각 4시 30분, 왕과 왕의 가족들이 입장하자 광파레가 울리면서 시상식은 무언사회로 시작된다. 먼저 노벨재단 이사장인 S교수가 개회사를 짧게 말한다. 그는 그 날 이른 아침 일찍 오슬로에서 개최된 바 있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축하하고, 근대 과학은 급속하게 국제화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의 개회사 중반에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이 G7 국가에 편중되고 있어 발전도상 국가들과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미국 한나라가 세계 과학기술개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과학기술의 R&D에 있어서 미국, 일본 및 EU 등 몇 나라의 투자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르며, 최근에 이르러 중국과 한국이 그 뒤를 이어 간다.”는 내용의 말도 했다. 매우 인상적인 발언이라고 할 것이다.

권위주의에 길들여진 필자의 눈에는 왕의 입장이 무방송으로 너무나도 조용하게 이루어진 것이 이상하게 보였다. 스웨덴 왕은 축하 한마디 없이 단지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었다. 그때 노벨 물리학상은 P. Carlson 심사위원장의 공적보고에 이어 R. Davis 교수, M. Koshiya 교수와 R. Giacconi 교수 등 3명에게 수여되었다. 이어서 Graslund 노벨화학상 심사위원장의 공적보고에 이어 J. B. Fenn 교수, K. Tanaka씨(박사 학위 없음), K. Wuthrich 교수 등 3명에게 노벨 화학상이 수여되었다. 금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은 S. Brenner

박사, H. R. Horvitz 박사, J. E. Sulston 박사 등 3명이 공동으로 수상하였으며, 노벨 문학상은 I. Kertesz씨에게, 노벨 경제학상은 D. Kahneman 교수와 V. L. Smith 교수 등 2명이 공동으로 탔다. 참으로 인상적인 것은 장면이 바뀌고 각각의 수상자가 등단할 때마다 박수와 광파레가 힘차게 울려 퍼진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가운데 막간으로 2~3분 가량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계속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해서 시상식은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일본은 물리와 화학분야에서 각각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일본에서는 기자단 60명과 참가자 50명이 이 행사에 초청되었다. 노벨상을 일본대국 전역에 홍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필자 내외와 중앙일보 K기자 등 3명이 초대되어 초라한 느낌을 금할 수 없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갈 것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주 스웨덴 일본대사관에는 과학관(science attache) 1명이 파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학술진흥회(JSPS)에서도 과학자 1명과 직원 1명을 현지에 파견하여 스웨덴과학한림원의 수상후보자 선정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어내고 또한 자국의 과학자를 홍보하는 일도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상분야의 심사위원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들을 차례차례로 일본에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하는 등 이른바 심사위원을 상대로 환심사기 운동을 강력히 벌인다고 한다. 필자는 우리의 국력이 이만한데도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배출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일찍 눈뜨지 못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지도자와 정부가 원망스럽기까지 하였다. 그나마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얼마 전에 노벨 물리학상 심사위원장과 노벨 화학상 심사위원장을 따로따로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두 나라 과학정보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니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할 뿐이다. 그러나 그때 이 두 심사위원장을 모시고 강연회를 실시하였는데 해당분야인 물리학과 화학분야에서 참석한 청중은 각각 50명도 채 안 되었다. 이런 초라한 강연회에서 강연을 한 그들은 실망한 나머지 다시는 한국으로부터의 초청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였다고 한다. 거의 모든 우리나라 과학 분야 학술모임의 현주소가 이러하거니와 이는 반드시 반성하고 시정되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노벨상 시상식은 오후 6시에 모든 시상행사를 마치고 스웨덴 왕이 퇴장함으로써 제1장의 막을 내렸다. 6시 30분에 버스 편으로 참가자 일동은 남자의 경우 연미복을 입은 채, 여자도 야회복을 입고 스웨덴 시청에 마련된 만찬장으로 이동하였다. 이 만찬도 7시 정각에 스웨덴 왕이 입장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윽고 왕이 짧은 두 마디의 건배사를 마치고 참석자 일동과 함께 축배를 들었다. 특기할 사항은 1,300명의 신사숙녀에게 네 가지 술과 여섯 종류의 음식물, 두 가지 후식을 서빙하기 위하여 전국 각 대학에서 선발된 200명의 남녀 학생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는 점이다. 주최 측의 말에 따르면 너무 많은 대학생들이 지원하여 올해도 시험을 거쳐 엄선한 다음 일정한 훈련을 거쳐 오늘 이 행사에서 음식 나르는 봉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구 사람들은 저녁을 그렇게 오랫동안 먹는 것인지, 네 시간 가까이 식사하는

일이 진행되었다. 그 동안 간간이 음악이 연주되고 다른 공연도 있었지만 특히 식사를 하는 도중에 스웨덴 모든 대학의 교기가 차례로 입장하여 행사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옆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인구 850만 명의 스웨덴에는 종합대학교가 6개, 단과대학은 25개뿐이라는 것이었다.

필자가 앉았던 테이블에는 전 노벨 물리학상 심사위원장이었던 T. Claesson 교수 내외, E. B. Karlsson 교수 내외와 스웨덴에서 50년 이상 살았다는 교민 한영우 박사 내외(내과의사) 등이 자리를 같이 하여 얘기를 나누었다. 우리들의 정답이 오가는 동안 이번에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올라가서 짧은 수상소감을 밝히는 순서가 있었다. 식탁에서 오간 이야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세계인구의 0.1%에 지나지 않지만 노벨상 수상률은 20%에 이르는 우수한 백성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 백성들은 자기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방 후 대만과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적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교포들은 이미 8명이나 노벨 과학상을 탔다고 한다. 미국에는 생존하고 있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만도 130명에 이르고 이웃 일본도 지금까지 15명이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 중 총 27개국만 노벨 과학상을 수상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한 사람도 없지 아니한가? 그런 나라들이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민족의 우수성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창의력 부족 때문일까? 노벨 과학상 수상후보자로 선정되려면 먼저 분야별 수상후보자 추천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이 후보자 추천위원도 몇 사람 안 되지만(총 2,000여 명) 그분들도 대개의 경우 외국 저명학자를 수상후보자로 추천하고 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정녕 못 참기 때문일까? 노벨과학상을 타려면 먼저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독창적인 업적의 수립도 있어야 하지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심성의 개조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R & D 투자 면에서 세계랭킹 8위인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은 자성하여야 할 일이다. 쓸쓰레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동안 축하만찬은 종반으로 치닫는 느낌이었다. 축하만찬은 밤 11시가 되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 때부터 우리는 금으로 벽을 장식했다는 2층 무도장으로 옮겨갔다. 거기서 선남선녀가 춤을 즐기게 되었고 밤 12시경에 이 날의 스웨덴의 국가적 행사인 노벨상 시상식이 모두 끝난 것이다.

다음 날 우리 내외는 스웨덴과학한림원 사무총장의 오찬 초대를 받아 스웨덴 한림원을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는 스웨덴 한림원장 내외, 일본학술회의 회장 내외, 일본 JSPS 사무총장 내외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 한림원의 IAP가입문제, 일본학술회의와의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매우 유익한 대화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노벨상 수상분위기를 가꾸기 위하여 하루 속히 스웨덴 한국대사관에 과학관의 파견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 한림원이나 한국과학재단 같은 기관에서 과학자를 현지에 파견하는 일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현지사정을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분야별 심사위원의 초청, 우리 선도학자들의 세일즈를 위한 공동학술행사 개최,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을 보다 활발하게 실시하는 일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것으로 노벨 과학상 수상시기를 5~10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박한 희망사항이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가적 품격이 높아지고 그런 나라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품격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 아닌가? 올림픽게임에서 금메달을 하나 따도 국민의 사기가 크게 높아지거든 하물며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한사람이라도 나오면 우리 국민들의 성취감과 자긍심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그때 우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내외가 이 행사에 초청을 받은 것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앞으로는 더 자주, 더 많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초청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2008. 12. 2).